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선생님 명설교 정리말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본문 : <대하 35:20-27>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므릿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진리, 선, 사랑의 나라는 인간들이 이뤄야

*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빛이 나시고, 말씀할 때 우리가 또 방향을 찾아 한 주일 동안 갈 곳을 찾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나라, 선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욕심도 해함도 고통도 없는 나라는 누구든지 다 실천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다 유리같이 맑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같이 맑은 마음을 갖고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늘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와서 이루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인간들이 이루어야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옛 말씀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 로 교육

*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을 보면 요시야와 느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요시야같이 잘 지킨 사람도 없고, 민족 정책을 요시야같이 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후에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 놓고서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러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이것을 모든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말씀이라고 해서 옛날의 하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와 같이 그러하다는 것을 어느 시대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옛날 종들에게나 쓰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같이 살면, 또 애인같이 살지 못하면 종같이 쓰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말씀은 종교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 말씀이 뿌리와 같은 말씀이라면 신약 말씀은 마치 나무 같은, 기둥 같은 말씀이고, 성약 말씀은 가지가지, 가지같이 잔잔하게 세밀하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구약은 댐 같다면, 신약은 댐에서 흐르는 물줄기와 같고, 또 성약시대는 그 물줄기가 갈라져서 각 논마다, 밭마다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병 낫는 신유의 은혜 다 있다

* 미워하면 귀신이 오고 사랑하고 다독거리면 귀신이 나갑니다. 사랑하면 병이 낫고, 미워하면 병이 오고! 선생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사랑하면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밥도 주고, 재워 주고, 다독거리니까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유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작든지 크든지 끝까지 해 줘야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입장입니다. 신유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유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 써먹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써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주려 느고에게 감동을 주심

* 요시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잘 하고 있는데, 요시야에게는 말 못 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늘, 언제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그 문제! 북쪽에 갈그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쳐들어온다, 때려 부순다, 늘 가만히 안 둔다고 해서 늘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갈그

미스와 같은 사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나라의 느고를 불렀습니다. “일어나 나와 같이 싸우는 자와 싸우자.” 하나님께서 느고를 감동시켜서, 저쪽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서는 그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 순진한 신부 같은 나라가 자체적으로는 뭘 해도 엄청난 그 세력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요셉 때 가서 은혜를 배풀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가 다 굶어 죽을 때, 가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바로 왕 밑에서 총리대신을 하면서, 굶어 죽을 때 흉년 때에 미리 앞날을 예시해서 그들을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시기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거슬러서 죽음

* 애굽에서 엄청난 군인들을 모아서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판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운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애굽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시야가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느고가 요시야를 때려 부수러 왔다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믿음 조건 세우고 하나 되어야

* 왕끼리는 서로 타협이 되었는데, 밑에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항상 밑의 사람이 잘 해야 됩니다. 밑의 사람들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쫓아오라! 따라오라! 절대 믿어라! 믿지 않으면 큰일 일어난다! 윗사람끼리만 상의해도 안 됩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시켜놓고 같이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 항상 맡겨 놓고 가지 말고, 반드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본인이 하든지, 같이 협조를 받고 본인이 중심이 돼서 하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지도자와 밑의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항상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일단은 들어야

* 요시야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미 느고를 통해서 역사하는 섭리의 흐름을 요시야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느고를 통해서 역사하는 섭리의 흐름을 눈치 못 채고, 자기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은 자기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말씀, 여기의 교과서 말씀을 늘 참고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일단 듣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요시야가 그때 믿음의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한 번 탁 세우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밑의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건!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의 조건을, 무조건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조건을 세울 때 마치 댐을 탁 막으면 물이 고이듯이 고이는 것입니다.

역사와 은혜의 기회를 알고 오래 참아야

* 요시야의 첫째 문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했는데 그것을 못 믿은 것! 그리고 역사의 돌아감을 몰랐다는 것! 은혜를 받는 기회를 몰랐다는 것! 또 하나는 밑의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해서 흔들렸다는 것! 요시야 왕은 가만히 있으면 활 한 방도 안 쏘고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면 깨끗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를 못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견뎌야 되나니! 사랑은 오~ 래~ 참고! 오~ 래~ 참아요. 사랑은! 여러분들, 오~ 래~ 참아야 됩니다. 길이길이 참아야 됩니다.

원수 통해서도 역사, 원수 사랑하라

* 하나님은 자기가 못하는 일은 상대를 통해서 꼭 역사하십니다. 원수를 통해서, 고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로부터 운명이 좌우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운명도 그 지도자와 의논해서 결정을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믿음의 조건, 실제의 조건을 세워야

* 믿음의 조건, 제일 처음에는 믿음을 조건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으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도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조건에 실제 조건을 세워서 탁 가야 됩니다.

사탄이 이성과 섭섭함으로 많이 들어온다

* 사탄의 길 중에 어떤 길이 제일 많이 닳았나 보니까 이성의 길이 제일 많이 닳아 있고, 그 다음은 섭섭함의 길이 제일 많이 닳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농사지을 때, 마지막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서 거둬들이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지 속의 상극×, 하나님 일 거스르면 ×

* 깨진 것은 다 무지(아는 것이 없음) 속의 상극(서로 부딪힘)세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망한 것은 무지 속의 상극입니다. 흥한 것은 무지 속에 상극세계가 아니고, 앎으로 아벨의 역사가 그 나름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 준 것인데,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무지 속의 상극세계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슬러서는 결단코 안되겠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행해서 만드는 것

* 천국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지, 였다 천국이다 하고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꼭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참아도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 해 보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